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성취와 직업경험의 다양성*

이성균**

I. 서론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생애과정을 경험한 집단이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교육기회가 본격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성인이 된 후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경제위기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의 과거 성장과정은 다른 세대와 다른 특징을 보이며, 현재의 경제적 상황도 내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중장년층에 대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증가하면서(정이환, 2006; 이성균, 2004),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거나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베이비붐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현재 모습을 낳은 생애경험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성취는 “특정 연령시점에 나타나는(age-segregated)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과거 경험의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Groenou and Deeg, 2010; Riley, 1994). 중고령층의 현재 모습도 학교·노동시장·가족 등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경험들이 누적된 결과이며(성지미·안주엽, 2006),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지위도 과거 직업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과 직업 경험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친 생애사적 요인을 분석한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생애기간의 노동시장 경험을 직업별로 파악하고, 생애 첫 직업·장기근무직업·현재직업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현재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정리하고 직업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

* 이 글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의 연구과제를 수정 요약한 것이다.

**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klee@ulsan.ac.kr).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50세를 기준으로 2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이다. 이 자료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처음 시작한 패널형식의 기초자료이며, 특히 2007년에는 개인생애과정의 직업경력을 조사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II.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성취와 노동시장 이동

1.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교육기회가 확대되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세대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시설 확대, 고등학교 평준화, 대학졸업 정원제 등 매우 다양한 교육제도 변화를 체험한 세대이므로,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적 성취를 경험하였다. 실제로 정부통계에 의하면, 1965년에 36.6%에 이르던 중학교 취학률은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도 실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1974년의 교육평준화 정책 이후 확대되었다.¹⁾ 특히 4년제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70년대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1981년의 대학졸업정원정책을 계기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취학률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반적인 학력 신장을 낳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25.6%는 중졸 이하 학력층, 절반은 고졸 이하 학력층이며, 22.7%는 대졸 이상 학력층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젊은 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의 비중이 높다. 앞에서 1980년을 전후하여 대학입학정원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구성

(단위: %)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 체	25.6	51.3	22.7
연령별 비교			
- 50세 미만	23.6	53.2	23.2
- 50세 이상	36.9	46.9	16.2

1) 한국인의 취학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통계개발원(2008)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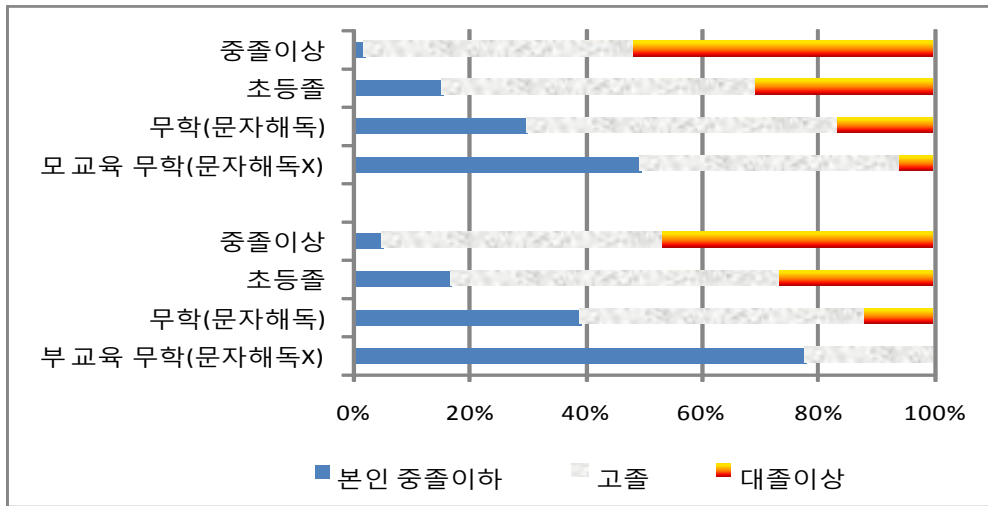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16.2%가 대졸자이지만,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졸자가 23.2%이다. 후자는 고등교육기회가 더욱 확대된 시기에 취학 연령기를 맞이했던 “젊은” 베이비붐 세대이므로, 50세 이상 연령층보다 더 높은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고학력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기회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대학정원확대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으나, 대졸 이상 학력층은 여전히 1/4에 못 미친다. 이러한 세대내 학력 격차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 아버지가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무학력층일 경우에 자녀가 중졸 이하인 경우는 78%에 이르며, 이러한 집단에서 자녀가 대졸자가 된 경우는 극소수이다(그림 1 참조). 반면 아버지가 중졸 이상일 경우에 자녀가 중졸 이하인 경우는 5%지만, 자녀가 대졸자가 된 경우는 46%에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성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고학력층일수록 자녀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자본을 전승하여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ourdieu, 1979; 양은경·이상길·장미혜·조은주·형일·홍성민, 2002). 현대 한국사회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면서 부의 대물림이 확대되는데, 교육적 성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이미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은 가족내 형제자매 지위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베이비붐 부모세대의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이 모든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투자를 지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부모세대의 대부분은 부족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녀 가운데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였으며,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당시에서는

[그림 1]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분포



장남에게 이러한 투자를 집중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본인이 장남일 경우 대졸자 비중은 33.5%인데 반하여, 차남 가운데 대졸자는 25.6%, 기타 자녀 가운데 대졸자는 17.1%에 불과하다.

2. 학력의 직업효과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어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어업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직업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탈산업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도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직업의 양적 증가는 농어업관련 직종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실제로 1970년에 전체 취업자의 50.2%를 차지하던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2000년에 10% 이하로 감소하였고, 18.8%에 불과했던 판매서비스직 비중은 2000년에 28.8%로 증가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 졸업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던 직업도 이러한 직업구조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은 화이트칼라 직종(사무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서 첫 번째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고졸 학력층도 기능직이나 조립직, 사무보조직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저학력층들도 시기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판매서비스직의 취업기회를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지속하였다(표 2 참조). 또한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현재 직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고학력층일수록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 여전히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저학력층일수록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이나 농업관련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첫 직업과 현재 직업의 구성비를 비교하면(표 2 참조), 학력별로 상이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농업관련 직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판매서비스직은 첫 번째 직업구성에서는 9.2%를 차지하였으나,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할 때 30.9%로 증가하였다. 반면 저학력층 가운데 단순노무농업관련 직업에서 첫 번째 직업생활을 하던 사람은 67.3%였으나, 현재 이러한 직업 종사자는 35.1%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고졸 학력층의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졸자의 현재 단순노무농업관련 직업구성비는 첫 직장의 경우에 비하여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판매서비스직의 구성비도 첫 직장의 2배로 증가하였다. 산업 및 직업구조의 시기적 변화가 개인의 직업 선택에 직접적인 효과를

〈표 2〉 학력별 생애 첫 직업과 현재 직업의 구성비

(단위: %)

		전문·관리직	준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조립직	단순노무·농업직
생애 첫 직업	중졸 이하	0.4	3.1	9.2	16.6	67.3
	고졸 이하	1.3	26.4	14.5	18.1	36.4
	대졸 이상	6.5	57.0	10.1	11.1	11.7
현재 직업	중졸 이하	1.3	2.8	30.9	23.1	35.1
	고졸 이하	6.2	17.1	30.1	24.3	18.2
	대졸 이상	17.3	47.9	13.0	10.4	5.9

났은 것이다.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준전문사무직은 감소하였으며, 다른 직업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시절에는 준전문사무직으로 처음 취업했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승진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의 첫 직업과 현재 직업구성비는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된 산업화와 직업구성변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으며, 학력집단별로는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다양한 직업이동 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III.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경력 변화

1. 첫 직업과 현재 직업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구성비 변화는 이들이 생애기간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직업이동도 빈번하게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직업경력 변화는 첫 직업과 현재 직업을 교차하거나, 생애기간에 장기간 근무했던 직업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직업과 첫 직업을 교차하면, 두 직업간에 연관성이 높고 직업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첫 직업이 관리·전문직일수록 현재 직업도 관리·전문직일 가능성이 높고, 첫 직업이 판매·서비스직인 베이비붐 세대도 현재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54.6%에 이른다. 그러나 첫 직업이 단순노무·농업직인 경우에는 24.8%만이 현재에도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준전문사무직 혹은 기능조립직을 첫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절반 이하가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첫 직업과 다른 직업에 현재 종사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판매서비스직이다. 준전문사무직, 기능조립직을 첫 직업으로 선택했던 베이비붐 세대도 현재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 전문관리직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바꿀 경우에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판매서비스직이다.

이러한 직업별 차이는 현재의 실업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서비스직으로 첫 번째 직장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 현재 실업자”인 경우는 3.5% 미만이지만, “첫 직업이 전문관리직이고 현재 실업자”인 경우는 5.9%이다. 전문관리직은 연령에 따른 계급(직위) 정년이 있으므로,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일자리를 잃으면 비슷한 조건의 직장을 찾기 어려워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과거 경력과 무관하게 창업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므로, 실업이 되더라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판매서비스직 출신자의 실업률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내 연령집단별로 약간 상이하다(표 3 참조). 준전문사무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현재에도 화이트칼라(전문관리직과 준전문사무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으나, 동일 직업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50세 미만에서, 전문관리직으로 상승 이동할 가능성은 50세 이상에서 더 높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블루칼라 관련 직업(기능조립원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은 50세 미만보다는 50세 이상에서 더 높다.2)

<표 3> 연령별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이동: 첫 직업과 현재 직업

(단위: %)

첫 직장	연령	현재 직업					
		전문관리직	준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조립원	단순노무농업직	실업
전문관리직	50세 미만	70.6	11.8	11.8	0	0	5.9
	50세 이상	40.6	26.7	26.7	6.7	0	0
준전문사무직	50세 미만	5.3	43.6	29.3	8.4	8.4	4.9
	50세 이상	11.9	38.7	22.6	10.7	11.3	4.8
판매서비스직	50세 미만	6.2	13.4	54.6	4.1	16.5	5.2
	50세 이상	1.1	11.4	53.4	1.7	15.9	1.1
기능조립원	50세 미만	6.3	11.3	18.3	42.3	18.3	3.5
	50세 이상	10.1	8.3	20.2	34.9	19.3	7.3
단순노무농업직	50세 미만	4.8	11.7	27	26.7	24.8	5.1
	50세 이상	3.8	9	18.3	26.3	37.2	5.4

2) 이들이 현재 기능조립원에 종사할 가능성은 40대 후반기 연령층의 경우 8.4%인데 반하여, 50대 전반기 연령층의 경우에는 10.7%이며, 현재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은 각각 8.4%, 11.3%에 이른다.

단순노무농업직의 경우에도 현재 준전문사무직(혹은 전문관리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단순노무직에 근무할 가능성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더 높고,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40대 후반기 연령층에서 더 높다.³⁾ <표 3>에서 단순노무직 출신자들이 현재 판매서비스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단순노무직에서 판매서비스직으로의 이동”은 동일세대의 젊은 연령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첫 직업, 생애장기직업, 현재 직업의 이동 유형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시기(20대 이후)부터 조사기간(2009년)까지는 20-3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첫 직업과 현재 직업 사이에 또 다른 직업생활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과거 노동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 가장 긴 기간 종사했던 직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장기간 종사한 직업은 준전문사무직(25.2%)과 판매서비스직(24.2%), 기능조립직(22.5%)이며, 관리·전문직 종사자는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를 첫 직업 구성비와 비교하면,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조립직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첫 직업이 판매서비스직인 베이비붐 세대는 12%였는데, 장기직업으로서의 판매서비스직 비중은 이보다 2배 증가하였으며, 기능조립직의 경우에도 첫 직업에서의 비중(16.3%)에 비하여 높아졌다. 또한 현재 직업과 비교하면, 다른 직업에서의 구성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준전문사무직에서 5% 정도 차이를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첫 직업→장기직업→현재 직업의 흐름은 이들의 생애 직업경로의 윤곽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준전문사무직으로 직업생활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58.5%가 동일한 직업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이 가운데 64.8%가 현재에도 같은 직업을 유지한다(표 4 참조). 또한 이들의 6.4%는 이후 전문관리직으로 변화하여 장기간 근무하였다.

또한 첫 직업이 단순노무농업직이었던 사람 가운데 장기근무 직업이 동일한 경우는 41.1%,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한 경우는 18.2%에 이른다. 연령별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은 50세 미만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좀 더 명확하다(표 4 참조).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최근 들어서 단순노무직에서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3) 40대 연령층 가운데 1/4은 단순노무직에 그대로 종사하고 27%는 판매서비스직으로 이동하였으나, 50대 연령층 가운데 이러한 직종의 분포는 37%, 18.3%이다.

<표 4> 첫 직업, 생애장기근무 직업, 현재 직업의 변화

(단위: 명, %)

연령 집단	첫 직업 →	생애 장기근무 직업 →	현재 직업						
			전문·관리	준전문·사무	판매·서비스	기능직	단순노무직	실업	전체
베이비붐 전체	준전문직·사무직 N=393	→ 준전문·사무직, 58.5 → 전문·관리직, 6.4 → 기타 직종, 35.1	4.8	64.8	14.3	4.3	6.1	5.7	100
	단순노무직 (농어업 포함) N=627	→ 단순노무직, 41.1 → 판매·서비스직, 18.2 → 기타 직종, 40.7	1.2	2.3	17.8	12.8	60.1	5.8	100
50세 미만	준전문직·사무직 N=225	→ 준전문·사무직, 62.7 → 전문·관리직, 4.0 → 기타 직종, 33.3	3.5	61.5	20	4.3	5.0	5.7	100
	단순노무직 (농어업 포함) N=315	→ 단순노무직, 39.0 → 판매·서비스직, 19.7 → 기타 직종, 41.3	0.8	4.1	22.8	11.4	52.8	8.1	100
50세 이상	준전문직·사무직 N=168	→ 준전문·사무직, 53.0 → 전문·관리직, 9.5 → 기타 직종, 37.5	6.7	69.7	5.6	4.5	7.9	5.6	100
	단순노무직 (농어업 포함) N=312	→ 단순노무직, 43.0 → 판매·서비스직, 16.7 → 기타 직종, 40.3	1.5	0.7	3.3	14.1	66.7	3.7	100

IV.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경력과 소득의 인과성

1. 소득수준

현재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인구는 소수의 고소득집단과 다수의 저소득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들(실업자 포함)의 10%는 연봉 21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집단이며, 25%는 1,020만 원 이하, 50%는 1,800만 원, 상위 25%는 3,600만 원이다. 반면 월평균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분포에 따라서 3개 집단으로 분류하면,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위 소득수준(중위소득의 140% 이상)의 집단

〈표 5〉 직업별 근로소득

(단위: %, 만 원)

	현재 직업	소득분포			평균소득
		하위	중위	상위	
베이비붐 세대 전체	전문·관리직	17.8	10.3	72.0	4,205
	준전문·사무직	15.8	28.1	56.2	3,444
	판매·서비스직	49.9	34.7	15.4	1,895
50세 미만	기능조립직	23.3	45.2	31.5	2,435
	단순노무·농업직	53.4	34.7	11.9	1,631
	전문·관리직	10.7	8.9	80.4	4,334
	준전문·사무직	14.6	32.7	52.6	3,294
	판매·서비스직	50	35.8	14.2	1,830
50세 이상	기능조립직	19	50	30.5	2,506
	단순노무·농업직	48.9	36.2	14.9	1,752
	전문·관리직	25.5	11.8	62.7	4,041
	준전문·사무직	17.4	21.5	61.2	3,660
	판매·서비스직	49.7	33.1	17.1	1,987
	기능조립직	28.2	39.1	32.7	2,354
	단순노무·농업직	57	33.5	9.5	1,527

주: 상위 임금구간은 “중위소득의 140% 이상”을, 중위는 “중위소득의 60~140%”를, 하위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의미함.

은 30%이며, 38.7%가 중위소득의 60% 이하, 49.8%는 중위소득의 60~140% 수준을 기록한다.

이러한 근로소득분포는 현재 직업에 따라서 상이하다. 연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전문·관리직이며, 가장 낮은 직업은 단순노무·농업직이다. 전문·관리직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단순노무·농업직의 2.6배에 이르며, 기능조립직도 준전문·사무직보다는 낮지만,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농업직보다 높다. 또한 각 직업집단별 소득분포를 보더라도(표 5 참조), 상위소득층 비중은 전문·관리직에서 가장 높고 단순노무·농업직에서 가장 낮다. 단순노무·농업직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하위소득집단에 포함될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다.

2. 직업경험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근로소득은 과거 생애경력을 반영하지만, 특히 장기간 근무한 직업이나 현재의 직업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직업경력과 근로소득(로그값)을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과거와 현재의 직업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는 명확하다(표 6 참조). 준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조립기능직으로 생애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 단순노무직보다 더 높은 근로소득을 기록하고, 장기 직업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도 현재 화이트칼라 직업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과 조립기능직의 근로소득이 단순노무직보다 더 높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종사상 지위도 근로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노동시장 경험 가운데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R^2)은 0.25(직업만을 고려한 경우)에서 0.45로 2배 정도 증가하였고, 회귀계수값을 보더라도 임시·일용직과 다른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소득은 매우 차이를 나타낸다. 과거 혹은 현재 직업이 동일한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도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용직과 고용주에 비하여 훨씬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이러한 근로소득 격차는 연령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노동시장 지위는 학교와 노동시장에서의 생애경력의 연속 선상에서 해석된다. 과거의 교육성취가 첫 직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직업경력은 생애 장기간 종사한 직업이나 현재의 직업, 그리고 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도 결정한다. 현재의 근로소득도 이러한 노동시장 경력이 누적된 결과이며, 개인의 과거 경력이 상이할수록 현재의 소득이나 고용안정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생애 직업경험이 현재 근로소득(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계수값	연령별 비교	
		50세 미만	50세 이상
생애장기직업 (기준=단순노무농업직)			
- 전문·관리직	.06	-.06	.00
- 준전문·사무직	.42**	-.03**	-.39**
- 판매·서비스직	.24**	-.01	-.34**
- 기능조립직	.24**	.03	-.39**
현재 직업 (기준=단순노무농업직)			
- 전문·관리직	.92**	.60**	.39*
- 준전문·사무직	1.22**	.77**	.69**
- 판매·서비스직	.89**	.54**	.46**
- 기능조립직	.86**	.46**	.49**
현재 종사상 지위 (기준=비상용 임금근로)			
- 고용주	1.01**	1.04**	1.14**
- 자영업자	1.21**	1.05**	1.36**
- 상용직 임금근로	1.16**	1.08**	1.25**
통계량(R^2)	0.45	0.44	0.45

주: 1) 회귀분석은 표에서 제시한 변수 이외에도 성, 생애 첫 직업, 교육 등을 포함하였으나, 이 표에서는 이 변수들의 회귀계수값을 생략함.

2) * $p < 0.05$, ** $p < 0.01$

V. 결론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별로 볼 때 가구주 혹은 부모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노년기를 준비해야 한다. 이들의 직장생활은 현재와 미래의 생활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고용상태를 좀 더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많은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된 일자리로부터 밀려났으며, 과거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일자리에 새롭게 직장생활을 지속한다. 이들은 최근의 노동시장 변동과정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새로운 일자리의 이동, 자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며 과거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내부에서도 50대 이후의 연령층은 노동시장에서의 분절화 정도가 매우 높아 소수의 고소득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은퇴연령의 조기화 추세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권유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국가는 중장년층의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한국에서도 중고령층의 노동능력을 재인식하고 퇴직연령을 일정하게 늦춘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를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할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기업은 당사자가 대비할 틈도 없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관행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관행을 실시함으로써 중년층이 새로운 일자리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봉급생활자로 살아왔던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자의 삶을 선택하므로, 이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곧 중년층이 될 연령층의 경제적 생활상태와 노동시장 지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성지마·안주엽(2006), 「중고령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pp.39~74.
- 양은경·이상길·장미혜·조은주·형일·홍성민(2002),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 사회』, 동문선.
- 이성균(2004),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동』, 울산대학교 출판부.
- 정이환(2006),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휴머니타스.
- 통계개발원(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 한국노동연구원(2007), 『2007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Agresti, Alan(1990), *Categorical Data Analysis*, Wiley Inter-Science.
- Bourdieu, Pierre(1979), *La Distinction*.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 Groenou, M. B. V. and D. J. Deeg(2010), "Formal and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of the 'young-old' in the Netherlands in 1992 and 2002," *Ageing and Society* 30, pp.445~465.
- Riley, Michael W.(1994), "Aging and Society: Past, present, and future," *Gerontologist* 34, pp.436~446.